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17호【루계 제24630호】주체103(2014)년 8월 5일(화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천지윤활유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천지윤활유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황병서동지, 리재일동지, 한광상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공장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연혁사에 대한 해설을 들으시며 적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과 혹심한 자연재해로 하여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인민경제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윤활유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공장터전도 몸소 잡아주시였고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윤활유공업을 첨단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공장을 종합적인 윤활제생산기지로 현대화하는 사업도 걸음걸음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뜨겁게 돌이켜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애국업적에 의하여 탄생한 공장, 장군님께서 단신으로 겪으신 고생과 맞바꾸어 후대들에게 물려진 이 공장에 와보니 이처럼 현대화된 훌륭한 공장을 장군님께 한번도 보여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가슴을 허빈다고, 천지윤활유공장은 유복자공장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천지윤활유공장에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지는 못했지만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언제나 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시기에 몸소 일떠세워주신 공장에서 일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장군님께 매일매일 생산보고를 올린다는 충정의 마음으로 살며 투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공장 하나만 놓고보아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부강조국건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씨앗을 뿌리시였는가를 잘 알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세기와 세대를 이어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신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분석실, 종합생산지령실, 윤활유작업반, 그리스작업반, 사출작업반 등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공정들의 기술적특성과 제품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천지윤활유공장은 모든 생산공정들이 자동화, 정보화, 무인화된 공장, 콤퓨터에 의한 통합생산체계를 완벽하게 실현한 수자화된 공장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을 우리 힘과 기술로 생산하고있는데 대하여 기쁨을 표시하시면서 앞으로 각종 륜전기재에 필요한 질좋은 윤활유와 그리스를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제품의 질이 수입제품 못지 않다고 하시면서 윤활유와 그리스의 기술적지표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수 있게 부단히 갱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도 정말 잘했다고 하시면서 특히 종업원 일인당 록지면적이 세계적기준을 훨씬 릉가하고있는데 대단하다고, 기업소가 그대로 공원이라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천지윤활유공장이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원료와 첨가제의 국산화비중을 높일데 대한 문제, 과학기술보급기지를 튼튼히 꾸릴데 대한 문제, 종업원들의 후방사업을 더욱 개선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기업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세계적 수준의 현대적인 천지윤활유공장을 가지고있는것은 자랑할만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 공장을 보여드리지 못한것이 정말 아쉽다고 다시금 되뇌이시였다.

2면으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천지윤활유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정책이 공장의 구석구석마다에서 정확히 관철되고있는 천지윤활유공장을 돌아보니 기분이 대단히 좋다고 하시면서 자기것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하는 이 공장을 온 나라가 다 알도록 크게 소개선전하여 모두가 따라배우도록 하여야 한다고 내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사업에서 성과의 비결은 일군들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당정책을 자자구구 깊이 새기고 그 관철을 위해 애써 노력하고있는 지배인 계철룡동무와 공장일군들에게 현지에서 당중앙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는 대해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천지윤활유공장이라는 명칭에는 백두산천지물처럼 맑고 깨끗한 량심으로 우리 당을 받들려는 공장 로동계급의 마음이 어려있다고 하시면서 높은 생산증산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실천으로 빛내여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종업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천지윤활유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여 하늘같은 사랑과 은정을 안겨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면서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결사관철할 충정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 애 하 는 김 정 은 동 지 께 서
천 지 윤 활 유 공 장 을 현 지 지 도 하 시 였 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고 전순희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사 전순희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4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벌가리아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발행식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를 벌가리아 자라바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7월 29일 출판사에서 진행되였다.

발행식에는 벌가리아공산주의자동맹과 출판사의 인사들, 군중이 참가하였다.

본사기자

경 애 하 는 김 정 은 동 지 의
혁 명 활 동 소 식 을
여 러 나 라 와 지 역 에 서 보 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인터네트잡지 《한베르져널》,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61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신 소식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라오스통신과 로씨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그루빠,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련합 인터네트홈페지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신 소식을 전하였다.

중국중앙TV방송과 로씨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그루빠,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전승절축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신 소식을, 리비아통신, 로씨야의 인터네트잡지들인 《한베르 져널》, 《렘취취》와 로씨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그루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로케트발사훈련을 또다시 지도하신 소식을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인터네트잡지들인 《한베르 져널》, 《렘취취》와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련합 인터네트홈페지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승절을 맞으며 진행된 4.25팀과 압록강팀간의 남자배구경기를 보신 소식을,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고산과수농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네팔신문 《아르판》은 조선인민군 제1521호기업소의 성천강그물공장과 수지관직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실었다.

로씨야, 라오스, 브라질, 네팔, 지역기구의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에 참가한 전국당책임일군들의 결의모임 진행

【삼지연 8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에 참가한 전국당책임일군들의 결의모임이 4일 삼지연대기념비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앞 교양마당에서 진행되였다.

당책임일군들은 먼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모임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였다.

모임에서는 최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보고에 이어 녕변군당위원회 책임비서 최일남, 명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최용길, 전력공업성 당비서 김영일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이 높이 모셔져있고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삼지연대기념비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것을 맹세하는 전국당책임일군들의 결의모임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조직하여주신 이번 답사행군은 전국의 당책임일군들에게 있어서 대원수님들의 절세의 위인상과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더욱 깊이 체득하고 당의 유일적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로 준비하는 혁명적교양과 단련의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답사행군과정에 당책임일군들이 백두의 산발을 주름잡으시며 피어린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과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길을 개척하시고 삼지연지구를 대로천혁명박물관으로 전변시켜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다시금 뜨겁게 절감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백두산밀영고향집앞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생애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면서 성스러운 태양의 성지가 있어 선군조선은 백두의 혈통으로 승승장구할것이라는것을 더욱 확신하였으며 혁명의 성산에 올라 백두의 혁명정신을 지니고 혁명을 끝까지 할 결심을 굳게 다지였다고 말하였다.

보천보혁명전적지와 대홍단혁명전적지 등에 대한 답사길을 이어가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위인상을 뜨겁게 새겨안았으며 우리 당의 혁명전통의 깊고도 억센 뿌리가 있어 주체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라는 신념을 심장깊이 새겨안은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혁명선렬들의 피어린 자욱이 그대로 새겨져있는 전구들에서 진행된 장편서사시 《백두산》랑송모임과 혁명가요합창경연,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발표모임과 문답식학습경연, 답사소감발표모임과 야외숙영은 일군들의 가슴마다에 투사들의 혁명적신념과 열화같은 조국애, 혁명적락관주의를 안겨주었다고 강조하였다.

항일유격대식군중정치사업을 통하여 당책임일군들은 어려울때일수록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심금을 울리는 정치사업을 벌리며 한 가정의 어머니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데 대한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금 체험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의 하루하루가 당책임일군들에게 있어서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부를 받아안은 잊을수 없는 나날이였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투쟁과업은 방대하며 우리의 앞길에 난관도 있지만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입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오늘 우리앞에는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여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다고 말하였다.

주체의 혁명전통을 창시하시고 끊임없이 발전풍부화하시여 백두령봉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이 영원히 승승장구해나갈수 있는 만년초석을 마련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당책임일군들이 깊이 체득하고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한생이 어려있는 백두의 행군길을 따라서면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과 업적을 깊이 체득시키며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답사와 참관사업을 더욱 짜고들고 온 나라에 혁명전통교양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백두밀림에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이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뚫고 멀리 앞으로 전진하였으며 오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오늘의 빨찌산 김대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선군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라고 강조하였다.

당책임일군들은 백두산에서 다진 맹세를 심장깊이 새기고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기에 최후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혁명적신념을 굳게 간직하며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기 위하여 더욱더 분발할것이라고 말하였다.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하여 한몸이 그대로 성벽이 되고 방패가 된 항일혁명투사들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수령결사옹위의 함성이 더욱 세차게 울려퍼지게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답사행군과정에 체득한 백두의 혁명정신을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에서 남김없이 발휘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당책임일군들은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처럼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웨치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고 당사업을 혁신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자기 단위, 자기 지역에서 백두산에 뿌리를 둔 일심단결의 위력을 천백배로 다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당책임일군들은 백두의 혁명전통의 철저한 체현자, 믿음직한 계승자가 되여 대오의 맨 앞장에서 전진, 전진, 투쟁 또 투쟁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두가 백두산에서 다진 맹세를 잊지 말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정다해 받들어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우리 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결의모임은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노래주악으로 끝났다.

모임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삼지연대기념비를 돌아보았다.

전국당책임일군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는 전체 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를 안겨주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따라 걸어온 백두의 행군길을 경애하는 원수님따라 끝까지 가고갈 신념과 의지를 백배해준 뜻깊은 계기로 되였다.

과감한 공격전으로 비약과 혁신의 불바람을 일으키며 힘차게 전진

세 포 지 구 축 산 기 지 건 설 장 에 서

혁 신 의 앞 자 리 와 치 밀 한 후 원 사 업

외교단사업총국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일수록 필승의 신념과 비상한 각오를 더 굳게 가지고 대담한 공격전, 전인민적인 결사전을 벌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적과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합니다.》

외교단사업총국 돌격대는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서 앞서나가는 단위로 소문을 내고 있다. 이 성과는 총국일군들이 의무감보다 주인된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건설장에 대한 후원사업을 주동적으로 조직전개한 사실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등판에서 열린 협의회

지난 3월초 총국돌격대앞에 올해의 풀판조성과 대상건설계획을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어려운 과업이 제기되였을 때였다. 이 문제를 놓고 총국책임일군들은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사실 축산기지건설에서 걸린 문제들을 전화로 얼마든지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줄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할수 없었다.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에 따라 진행되는 우리 식의 대규모축산기지를 사소한 부족점도 없는 만점짜리 창조물로 일떠세워야 했기때문이였다. 이처럼 중요한 사업을 제기되는 자재나 인원을 보장해주면서 조언이나 주는 식으로 대해서는 자기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말할수 없었다.

-당의 뜻대로 책상머리가 아니라 들끓는 현실에 대담하게 뛰여들어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실속있는 대책을 세워주자.

이렇게 결심한 책임일군들은 즉시 후방물자를 준비해가지고 건설장을 향해 떠났다. 도착해서는 숙소가 아니라 개간지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실태를 료해하였다. 그 과정에 미처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였다. 그것은 작업량이 방대하여 돌격대의 력량만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사실이였다. 지력을 높이자면 정보당 수백t의 흙깔이를 해야 하였는데 주변에는 그 원천이 없었다. 씨불임철전까지 보습날도 박기 힘든 땅을 깊이 갈고 풀뿌리를 말끔히 걷어낸 다음 정보당 수십t의 토양개량제도 실어내여 땅을 질적으로 다루어야 하였다. 그리고 수km의 배수로 치기와 도로건설도 해제껴야 하였다. 이 모든것은 책상머리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문제들이였다.

등판에서 협의회가 열리였다. 책임일군들은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무감보다 주인이라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방도를 찾기 위해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협의회에서는 총국적으로 품이 많이 드는 작업들을 기계화할수 있게 륜전기재와 농기계들을 집중하고 로력보장을 따라세우자는 안들이 나왔다. 실속있는 방도들이였다.

그러나 그때 책임일군들은 쉽게 결심을 내리지 않았다. 무슨 일이나 방법론을 세워가지고 해제껴야 더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기때문이였다. 그들은 먼저 작업대상별로 실적을 높이는데 필요한 륜전기재 및 농기계들의 종류와 대수를 확정하였다. 그 다음 총국을 포함한 모든 산하 단위들에 먹이풀판조성과 살림집, 집짐승우리건설과제를 분담하고 로력과 자재보장대책도 세웠다.

책임일군들은 이런 빈틈없는 작전에 기초하여 그 수행을 위한 후원사업을 조직하였다. 이에 따라 총국과 산하단위들에서는 돌격대와 경쟁적으로 풀판조성과 대상건설을 다같이 밀고나갈수 있게 새로운 전투력량을 편성하여 현지로 떠나보냈다. 각종 륜전기재들을 시급히 현지에 도착시킨 책임일군들은 농기계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였다. 결과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전투시작부터 실적을 높여나가게 되였다.

끝까지 함께 걷자

성과가 높아질수록 총국책임일군들은 더 자주 현지에 나가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수행할 때까지 후원사업을 집중적으로 통이 크게 조직하였다.

지난 6월 어느날, 지난해 조성한 먹이풀판에 나가 정보당 생산량을 따져보던 책임일군들은 한가지 문제에 주의를 돌리게 되였다. 들인 품에 비하여 정보당 먹이풀생산량이 낮았던것이였다. 물론 돌격대일군들과 기술자들에게 과업을 주고 그 수행정형을 보고받을수도 있었다. 하지만 책임일군들은 자기들의 책임감을 먼저 생각하였다.

-제기된 문제를 풀기 위해 끝까지 돌격대와 함께 걷자.

책임일군들은 이런 각오로 분발해나섰다. 그들은 토양분석자료를 놓고 따져보는 과정에 토양구조를 질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다는것과 먹이풀생육에 필요한 여러가지 영양원소들이 부족한데 그 원인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수천t의 분토와 흙깔이재료가 필요하였다.

즉시 이 문제를 총국적인 범위에서 해결하기 위한 조직사업이 진행되였고 여기에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너도나도 발벗고나섰다. 토양개량제가 확보되자 책임일군들은 렬차로 집중수송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흙깔이재료는 자동차로 집중수송대를 조직하여 운반하게 하였다. 결과 돌격대에서는 닷새동안에 계획보다 훨씬 많은 량을 등판으로 실어낼수 있게 되였다. 또한 자동차로 집중수송대를 조직하고 1 000여리 떨어진 곳에서 린성분을 보충할수 있는 재료를 이틀동안에 운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보당 400kg을 포전에 낸 다음 적기에 씨불임을 할수 있게 하였다.

토양개량제실어내기전투가 진행될 때였다. 포전을 돌아보던 한 책임일군은 실적이 제일 높은 단위에 내려가 그 비결을 알아보았다. 결과 지형상 소형뜨락또르를 리용하는것이 운반작업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그래서 다른 단위들에서도 소형뜨락또르를 요구하고있었다. 그리하여 총국에서는 소형뜨락또르를 현장에 보내주기 위한 후원사업을 조직하여 은이 나게 하였다.

건설물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후원사업을 조직할 때에도 그러하였다. 대상건설장을 타고앉은 책임일군들은 먼저 시공일군들을 선발보충해주고 기초공사와 벽체쌓기에 력량을 집중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벽체쌓기가 끝나는 차제로 목공, 미장공들로 조직된 작업조를 현지에 도착시켜 지붕공사와 벽체미장, 내부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공사기일을 훨씬 앞당기면서도 대상건설을 손색없이 결속할수 있게 하였다.

그때만이 아니였다. 책임일군들은 가물이 계속되던 때에는 물자동차를 현지에 도착시켜 고랑관수를 할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물공사현장에 나간 책임일군들은 공사량을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세멘트, 강재, 모래는 물론 마감건설자재까지 현지에 확보해놓기 위한 후원사업을 조직하여 살림집과 집짐승우리건설이 중단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하였다.

주인된 자각과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벌려온 총국책임일군들의 실속있는 후원사업, 바로 이것이 돌격대가 앞선 단위로 될수 있게 한 비결인것이다.

되돌아서게 된 사연

금강지도국 돌격대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은 우리 인민의 세기적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입니다.》

지난 어느날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 금강지도국 일군인 오룡일동무가 찾아왔다. 그는 싣고온 지원물자들을 돌격대원들에게 넘겨준 다음 현장을 밟아가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서는 그곳을 떠났다.

그러나 얼마후 돌격대일군들인 최윤복, 윤영수동무들은 그가 탄 자동차가 다시 되돌아오는것을 보게 되였다.

(혹시 미처 알려주지 못한 문제라도?)

돌격대일군들이 제나름의 생각을 하고있는 사이에 자동차는 어느덧 그들의 곁에 와 멎어섰다.

《동무네가 걱정하던 골재를 이 주변에서 어느 정도 해결할수 있을것 같더구만. 내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의논하자는거요.》

(그러니 골재문제때문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던 돌격대일군들은 뒤늦게야 그 일군의 바지가랭이가 물에 흠뻑 젖어있다는것을 알아보았고 그가 되돌아온 까닭을 짐작하게 되였다.

사연인즉 이러하였다. 돌격대원들과 헤여진 후 건설자재문제 해결방도를 모색하며 달리는 차창밖을 내다보던 그는 골을 따라 흐르는 강물을 보는 순간 피뜩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그것은 강바닥에 건설에 리용할만한 골재가 꼭 있음직하기때문이였다.

이윽고 차를 멈추게 한 그는 강을 거슬러올라가며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러다가 어느 한 곳에 이르러서는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리고 차디찬 물속으로 들어가 강바닥에 쌓여있는 모래를 두손으로 퍼올렸다. 자세히 보니 얼마든지 건설자재로 리용할수 있었다. 특히 건설장까지의 운반거리도 그만하면 맞춤하였다.

그는 강바닥에 쌓여있는 골재의 매장량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에야 강기슭으로 나왔다. 그리고는 이 사실을 돌격대일군들에게 한시바삐 알려주고 골재운반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이렇게 가던 길을 되돌아섰던것이다.

이렇게 되여 그는 돌격대일군들과 또다시 무릎을 마주하였다. 그들은 략도까지 그려가며 골재채취장까지의 도로를 짧은 기간에 내는 문제, 골재채취와 운반에 필요한 여러가지 륜전기재와 설비보장대책 등을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저녁어스름이 깃들무렵에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자동차에 오르면서 그는 손을 잡고 말을 잇지 못하는 돌격대일군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돌격대의 한 성원이요.》

진정이 넘친 그의 말에 돌격대일군들은 뜨거운것을 삼켰다.

멀어져가는 차를 손저어 바래주는 그들의 눈앞에는 지도국일군들이 지난 기간 대규모축산기지건설장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도와나서던 때의 일들이 떠올랐다.

성능높은 뜨락또르와 농기계들, 각종 작업공구들은 물론 많은 먹이풀씨와 수만그루의 나무모들을 앞질러가며 보장해주던 일, 돌격대원들이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여러가지 문화기재와 후방물자들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전투현장을 찾아오던 일…

책임일군들의 이런 남다른 관심과 적극적인 후원사업이 있어 돌격대는 언제나 혁신의 한길로만 내달릴수 있었던것이였다.

그야말로 적극적인 후원사업은 백마디의 말을 대신하는 힘있는 정치사업이였다.

그때로부터 얼마후 굴착기와 불도젤을 비롯한 륜전기재들과 설비들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전투장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였고 먹이풀판조성준비와 건설자재확보사업에서는 나날이 성과가 이룩되였다.

돌격대원들도 흐르는 분과 초를 기적과 위훈으로 수놓아가며 맡겨진 전투과제를 날마다 넘쳐 수행해나갔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이 천 군 사 단 에 서

건 축 공 사 실 적 을 높 여 나 간 다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는 이천군사단에서 계획된 대상건설과제를 다그쳐 끝내기 위한 전투에 력량을 집중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신심과 락관에 넘쳐 최후승리를 향하여 돌진하여야 합니다.》

사단지휘부에서는 장마철전까지 80여동의 살림집, 집짐승우리, 공공건물들에 대한 외부공사를 기본적으로 끝낼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사단안의 많은 성, 중앙기관돌격대들에서 맡겨진 건축물공사과제를 계획된 날자까지 다그쳐 끝내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국가과학원돌격대가 맡겨진 건축물공사과제를 높은 속도로 다그쳐나갔다. 국가과학원의 당, 행정책임일군들이 많은 건설로력과 함께 세멘트, 철근을 비롯한 자재를 제때에 보장해주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였다. 여기에 적극 고무된 돌격대원들은 드센 공격전을 벌려 6동의 살림집과 집짐승우리들에 대한 외부공사를 계획된 날자보다 훨씬 앞당겨 끝내고 내부공사에 진입하였다.

공사시작부터 실적을 높여나가고있는 국토환경보호성돌격대에서도 성책임일군들의 적극적인 방조밑에 맡겨진 건축물의 골조공사를 결속하고 지붕씌우기를 진행하고있다.

유원지총국 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직정치사업이 돌격대원들을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 결과 계획된 대상건물의 지붕씌우기와 살림집, 집짐승우리에 대한 골조공사가 마감단계에 이르렀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높이 발휘되고있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돌격대전투장에서는 6동의 건축물외부공사가 마감단계에서 진행되고있다.

국가자원개발성돌격대에서는 성책임일군들과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많은 건설자재를 확보해놓은 다음 짧은 기간에 3동의 살림집과 집짐승우리들에 대한 층막 및 기초콩크리트치기를 끝냈다. 문화성돌격대에서도 필요한 로력과 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준 성책임일군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집짐승우리들에 대한 골조공사를 기본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외국문출판사, 석탄공업성, 평양가금지도국, 3대혁명전시관, 조선혁명박물관, 고려의학과학원돌격대에서도 해당 기관들과의 협동작전을 실속있게 벌려 맡겨진 공사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가고있다.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게

새로 일떠선 문화주택들

복받은 대지에 집짐승떼 흐른다.

포기마다 정성을 담아

3월5일청년광산 몰리브덴공장 완공, 조업식 진행

조 선 로 동 당 중 앙 위 원 회 감 사 문 전 달

【강계 8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3월5일청년광산에 몰리브덴공장이 새로 건설되여 조업하였다.

현대적인 몰리브덴공장이 건설됨으로써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유훈이 빛나게 관철되고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할 또 하나의 튼튼한 밑천이 마련되게 되였다.

조업식이 4일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박도춘동지와 관계부문 일군들,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 광산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조업식에 참가하였다.

조업식에서는 몰리브덴공장 건설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운 3월5일청년광산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과 김책공업종합대학 금속공학부 교원, 연구사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이 전달되였다.

감사문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나라일이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3월5일청년광산을 몸소 3차례나 찾으시여 광산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광산에서 생산하는 몰리브덴정광을 발전하는 세계적추세에 맞게 가공할데 대한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이 땅우에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당중앙은 몰리브덴공장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혁명적인 대책을 세워주었으며 광산의 로동계급과 일군들이 공사를 하루빨리 완공하도록 따뜻이 손잡아이끌어주었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광산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이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려 매월 생산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면서 자체의 힘으로 현대적인 몰리브덴공장을 훌륭히 일떠세우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광산당조직과 일군들은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으로 일판을 크게 벌리고 화선식정치사업과 능숙한 지휘로 대중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였다.

건설공사를 통하여 광산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조선로동계급의 억센 기상과 전투적위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으며 당과 수령의 구상을 결사관철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감사문에서 3월5일청년광산의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과 김책공업종합대학 금속공학부의 교원, 연구사들이 당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을 지니고 무비의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며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현대적인 몰리브덴공장을 일떠세우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업식에서는 김춘섭 자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의 조업사에 이어 광산부기사장 김철룡, 직장장 김강유, 김책공업종합대학 금속공학부 강좌장 차수경이 토론하였다.

그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을 받아안은 영광에 대하여 언급하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고 높은 생산성과로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중시기풍을 세우고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함으로써 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업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업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공장을 돌아보았다.

새로 완공된 3월5일청년광산 몰리브덴공장의 일부

주체건축의 본보기적창조물로 단숨에 완공할 혁명적신념과 의지

5월1일경기장개건보수공사장에서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의 위력

조선인민군 주영호소속부대에서

조국은 잊지 않으리

풍치아름다운 릉라도에서 장엄한 건설의 교향악이 힘차게 울리고있다.

우리 당의 사랑속에 어제는 훌륭한 유원지와 꿉등어판이 솟아올라 인민의 기쁨이 넘쳐나는 릉라도의 5월1일경기장에서 조선속도창조의 시간이 줄기차게 흐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은 강성국가의 기초를 다지고 인민들의 행복의 터전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선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6월에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이 휘몰아치는 5월1일경기장을 또다시 찾으시고 군인들과 건설자들의 로력적위훈을 높이 평가해주시였으며 공사를 최단기간에 완공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당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5월1일경기장은 문명국의 체모에 어울리도록 훌륭히 변모되고있다.

활짝 펼친 락하산마냥 곡면지붕이 은빛을 뿌리고 모든 벽체는 등색과 회색타일로 새롭게 단장되였으며 지붕의 밑면도 트라스와 일치되는 연회색으로 새롭게 장식되였다.

경기장의 관람석도 볼만 하다. 관람석바닥에 보기에도 부드럽고 안온한 감을 주는 색갈의 도색을 하고 관람의자는 공화국기를 형상하여 청색과 흰색, 붉은색으로 조화롭게 배치되고있다.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경기장의 개건보수과정에는 체육경기정형과 순위판정을 위한 계측설비들도 일식으로 갖추어지게 된다. 어디 그뿐이랴.

경기장의 안팎에는 체육과 문화시설, 봉사시설들이 즐비하게 배치되고 축구장과 룩상주로도 국제적기준에 부합되게 인공잔디와 현대적인 바닥재료로 시공하게 되여있다.

문명국의 체모에 어울리게 변모되는 경기장개건보수공사의 규모는 대단히 방대하다. 연건축면적이 수십만㎡가 훨씬 넘는 경기장의 건물미장면적은 100여만㎡에 달한다. 세부별개건보수대상은 천수백개소나 되며 건물의 천정수정면적도 10만㎡이상이다.

공사에 참가한 인민군장병들과 건설자, 돌격대원들은 그처럼 아름찬 공사량의 많은 몫을 짧은 기간에 해제끼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수만㎡에 달하는 바깔벽체타일붙이기가 전부 결속되였다. 지붕트라스와 밀면도색, 지붕판상부세척공사도 성과적으로 끝났다. 현장에서는 지금 건물안의 방들에 대한 천정과 벽체, 바닥공사가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진척되고있다.

건설지휘부에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현지말씀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결사관철하기 위해 모든 시공단위들이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공사실적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하고있다. 지휘부에서는 타일과 돌붙이기작업에서 우수한 시공단위를 정하고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여 모든 단위 일군들과 전투원들이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전반적인 공사가 마감단계에 들어선 조건에 맞게 건재확보에도 힘을 넣고있다.

여러 단위의 군인건설자들이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조선인민군 김금철소속부대의 지휘관들과 장병들은 건설의 대번영기를 열어나가는 오늘의 보람찬 투쟁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될 기세드높이 하나하나의 건설대상을 흠잡을데없이 완성하고있다.

조선인민군 주영호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군대의 투쟁기풍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이곳 지휘관들은 부대가 아름찬 공사량을 맡은 현실조건에 맞게 주타격대상을 바로 정하고 집중포화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규모가 큰 대상들의 공사기일을 훨씬 줄이고있다.

조선인민군 김봉준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도 당의 결심은 곧 실천이라는 혁명적의지를 안고 비상한 창조정신을 발휘하고있다. 부대장병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수십개소의 위생실들에 대한 타일붙이기가 결속되고 바닥돌붙이기를 비롯한 나머지공사에 박차가 가해져 전부대적인 총공사량의 90%가 수행되였다.

혁명사적지건설지도국아래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전투원들도 조선속도창조의 기상을 힘있게 떨치고있다. 함경남도려단과 자강도려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인민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을 본받아 이동식권양기 중기를 비롯한 능률높은 건설장비와 기공구를 갖추고 돌가공과 조립, 경기장의 지붕공사실적을 끊임없이 높이였다.

각 도려단의 연공들도 헌신적인 투쟁을 벌려 8만여㎡에 달하는 지붕판세척공사를 한달동안에 끝내는 비약적성과를 이룩하였다.

원림공사성과도 확대되고있다. 평양시인민위원회와 묘향지도국, 평양원예지도국과 릉라도지도국, 중앙산업미술지도국을 비롯한 여러 단위 일군들과 전투원들의 애국적열정에 떠받들려 경기장주변에는 10여만㎡의 면적에 푸른 주단이 펼쳐지고 수천그루의 나무심기가 끝난 결과 총공사량의 90%계선이 돌파되였다.

공사에 참가한 군인들과 건설자들의 대진군속도에 발맞추어 상원과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룡강지구의 돌생산단위들에서 건설자재를 원만히 보내주고있다.

인민의 리상과 꿈을 실현하는 보람찬 투쟁의 길에 값높은 위훈을 새겨가는 인민군장병들과 건설자들에 의해 5월1일경기장이 주체체육과 건축의 본보기적창조물로 손색없이 완공될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본사기자 지 원 철

조선인민군 주영호소속부대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건설전투장들에서 창조되는 새로운 건설속도와 시대정신은 천만군민을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영웅적투쟁과 위훈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합니다.》

5월1일경기장개건보수공사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주영호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걸음마다 새겨가는 위훈창조의 밀바탕에는 무엇이 깃들어있는가.

-오늘의 건설은 단순한 창조사업이 아니라 조국과 인민앞에 병사의 애국심을 검증받는 비상한 공격전이다.

이것이 부대장병들의 심장마다에 간직된 드림없는 신념이다. 하기에 이들이 수행하는 공사의 하루하루는 당정책결사옹위전으로 자랑스럽게 엮어지고있다.

부대가 맡은 건설대상은 감독실과 선수실들, 복도와 봉사시설을 비롯하여 수십개 대상을 헤아린다. 그만큼 각이한 건설물의 구조는 복잡하고 시공조건도 어렵다.

그에 비해볼 때 부대의 시공력량은 대단히 적다. 하지만 전부대적인 공사과제는 매일같이 어김없이 수행되고있다. 비결은 무엇인가.

부대지휘관들이 공사의 성과적보장을 위해 중시한 고리가 있다.

건물보수와 수정작업에 필요한 능률적인 기공구확보이다. 공사에 앞서 부대적으로 확보된 착정기와 각종 드릴을 비롯한 120여가지의 설비와 기공구들은 많은 로력과 공사시간을 줄이는 튼튼한 토대로 되였다.

성과의 요인은 거기에만 있지 않다. 부대에서는 대상별공사과정에 시공력량을 분산시키지 않고 집중포화를 들이대는 방법으로 일대 진공전이 벌어지도록 하고있다.

집중포화의 불길속에 큰 규모의 전기시설과 물랑크공사를 비롯한 적지 않은 공사과제들이 계획보다 훨씬 앞당겨 수행되였다.

그 과정이 결코 헐하게 흐른것이 아니다. 부대가 맡은 감독실과 선수실들은 층수가 어지간히 높은 곳에 배치되여있다. 그곳까지 필요한 공사자재를 운반할 수단이 부족할 때면 부대의 모든 장병들은 공사조건이 마련되기를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다.

-우리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군대이다. 어머니조국이 우리를 지켜본다.

이 하나의 혁명적의지를 안고 모두가 떨쳐나 운반한 자재량은 다 헤아릴수 없다. 그처럼 어려운 하나하나의 공정수행과정에 부대아래 김학철소속구분대의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은 전격전, 립체전을 드세차게 들이댔다.

공사의 나날에 전진의 기상을 떨치며 완공의 날을 마중해가는 투쟁에서 건설물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는 김남일, 장남수, 리금성동무들과 높은 기능을 소유하고 낮에 밤을 이어가며 용접의 불보라를 중단없이 날리는 강영일, 남대훈동무들…

공격전의 불길속에 뛰여들어 목에서 겨불내가 나도록 내달리며 흐르는 분과 초를 위훈속에 빛내여가는 그들의 영웅적인 투쟁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적다. 하지만 어머니조국과 우리의 후대들은 기억할것이다.

사회주의문명을 과시하는 주체건축의 본보기적창조물건설에서 혁혁한 군공을 세운 선군시대 병사들의 값높은 위훈을.

본사기자

‖ 뜨거운 애국심과 깨끗한 량심을 안고 ‖

-속도전청년돌격대에서-

-조선인민군 류화렬소속부대에서- 본사기자 찍음

‖ 현지보도 ‖

일당백공격속도로!

◎조선인민내무군 전창수소속부대 건설현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에도 군민협동작전으로 평양시를 더욱 웅장화려하게 건설하고 도, 시, 군들을 해당 지방의 특색이 살아나게 잘 꾸려야 합니다.》

여기는 5월1일경기장, 머지 않아 수십종목의 국제 및 국내체육경기들이 진행되게 될 경기장의 바닥이다.

지금 여기서는 조선인민내무군 전창수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의 개건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일당백공격속도로!

경기장의 주석단쪽에서도, 맞은켠의 배경대쪽에서도, 바닥에서도 이런 정신력으로 공사속도를 부쩍 높여가는 군인건설자들의 위훈넘친 투쟁모습이 한눈에 안겨온다.

수만㎡에 달하는 경기장바닥에서는 바닥다짐공사가 마감단계에서 진행되고있다.

드넓은 바닥은 어느 곳 하나 나무랄데 없이 정갈하게 다듬어져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 체육시설의 본보기로 꾸려야 하는 경기장의 바닥이기에 이곳 지휘관들은 측량기를 마주한 군인건설자들과 함께 지표우의 점과 점들사이에 미세한 차이라도 있을세라 높낮이를 재고 또 재여보며 해당한 지시를 내린다. 로반다짐차들이 동음을 울린다.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위치를 차지하며 바닥면을 최종적으로 검토완성한다.

경기장의 중심부에서는 조선인민내무군 장성국소속구분대의 군인건설자들이 손드릴로 관람석바닥면에 대한 구멍뚫기작업이 치렬하게 벌어진다.

처음 손드릴을 잡을 때에는 군인 한명이 하루에 관람석의자 설치를 위한 800여개의 구멍을 냈다면 지금은 1 500여개의 구멍은 문제없다고 군관들은 말한다.

놀라움을 표시하는 우리에게 그는 맞은켠 5층관람석방향을 가리킨다.

청색, 흰색, 붉은색의 키낮은 의자들이 조화를 이루어 우리의 국기를 형상한 관람석이 보인다.

우리와 동행한 군관 전창수동무는 말한다.

《저기 보이는 관람석의자의 색갈맞춤에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지니신 숭고한 조국애가 깃들어있습니다. 지난 6월, 경기장을 찾으시였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세심하고도 구체적인 가르치심에 따라 경기장관람석 전체가 한폭의 공화국기를 펼쳐놓은것처럼 우아하고 이채롭게 형성되고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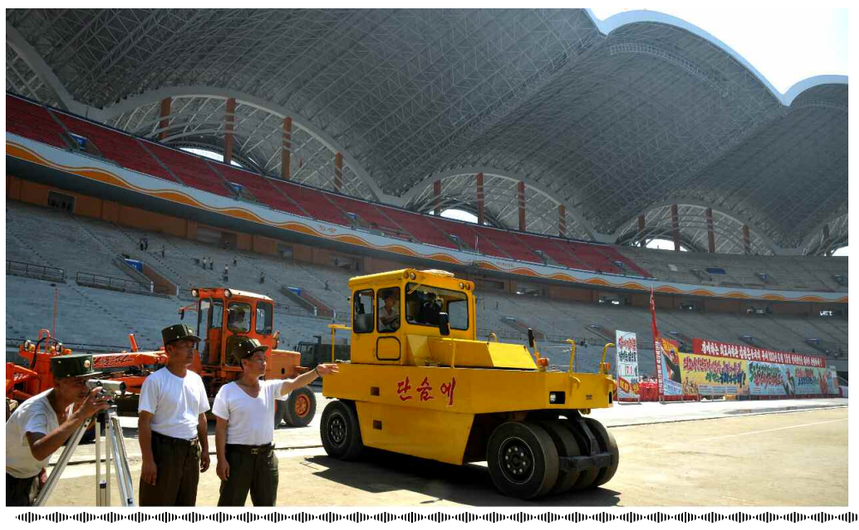
우리는 그의 이야기에서 뜨거운 열파가 몰아치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일당백공격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리는 군인건설자들의 힘의 원천을 본다.

경기장관람석에 펼쳐진 람홍색기발의 형상!

이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노도쳐 진격해나가는 군인건설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준다.

우리의 문명을 만방에 떨칠 승리의 그날을 향하여 대기온도가 36℃를 오르내리는 열파속에서도 조선인민내무군 전창수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은 경기장바닥에서, 관람석에서 조선속도창조투쟁의 불길높이 일당백공격속도로 완공을 앞당겨간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강명천



수리개들의 위훈

혁명사적지건설지도국에서

혁명사적지건설지도국의 건설자들과 연공들이 5월1일경기장개건보수전투에서 로력적위훈을 수놓아가고있다.

8월 2일현재 이들이 맡은 대상공사실적은 95%계선을 넘어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 우리의 투쟁은 인민의 아름다운 리상과 꿈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빛나게 장식할 대축전장과 잇닿아있는 승리자의 진군입니다.》

지난 6월, 5월1일경기장개건현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경기장의 아치부분을 바라보시면서 이곳 연공들의 작업성과를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못 잊을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값높은 평가를 받아안은 이곳 건설자들은 불리한 계절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하루계획을 200%로 넘쳐 수행하고있다.

하루계획을 200%로 넘쳐 수행!

바로 여기에 수리개마냥 억세게 내달리는 이곳 건설자들과 연공들의 위훈이 그대로 비끼여있다.

이들의 작업대상과 위치는 다른 시공단위들과 구별된다.

공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자면 공중과 지상에서 립체전을 벌려야 하였고 때로는 물속에서의 전투도 벌려야 하였다. 공중에서의 작업량만 놓고보아도 여덟달은 실히 걸려야 하였다.

과연 이들은 어떤 심장을 지녔기에 방대한 공중작업과제를 다섯달 남짓한 기간에 기본적으로 끝낼수 있었는가.

이들의 가슴속에는 공사기일을 앞당겨 경애하는 원수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리려는 오직 이 한가지 생각만이 불타고있다. 이런 충정을 지닌 건설자들이기에 아치의 그 어느 부분에도 안전하게 올라 작업할수 있는 비행발판도 작업삭도도 창안도입하여 공사속도를 부쩍 높일수 있었다. 2㎡에 대한 경간녹털기작업이 1인당 하루 정량이라면 하루에 4㎡이상씩 해제낀 연공들도 있었다. 그들은 황해북도, 함경북도, 남포시를 비롯한 각지에서 이곳 건설장으로 달려온 미더운 수리개들이였다.

눈보라가 사납게 몰아치고 비물이 억수로 쏟아져내리는 날에도 이들은 중단없이 공사를 진행하였다. 1만 수천㎡에 달하는 돌계단공사가 강추위속에서 진행되였다면 강변에 쌓인 수많은 감탕을 처리해야 하는 호안정리공사도 많은 비가 내리는 장마철에 성과적으로 추진되였다.

저 하늘을 날아예는 수리개마냥 억센 기상을 보여주는 연공들과 건설자들의 이런 투쟁의 나날속에 완공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본사기자

크나큰 은정을 받아안은 함주군의 장수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장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는 가운데 함주군 읍에서 사는 리매월할머니가 백번째 생일을 맞이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시였다.

생일상을 받아안은 할머니는 온 나라 인민을 한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마음으로 촛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해방전 가난한 소작농의 딸로 태여나 망국노의 설음안고 살아온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을 찾아주신 후에야 비로소 참된 삶과 행복을 누리게 되였다.

그는 농업생산을 위해 성실히 일해왔으며 년로보장을 받은 후에도 일손을 놓지 않고 좋은 일을 많이 하였다.

할머니는 고마운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과 근면한 로동, 편식을 모르는 식생활이 장수할수 있게 하였다고 말하였다.

장수자로인의 가족, 친척들은 당의 은덕을 언제나 잊지 않고 부강조국건설을 위해 힘껏 일해갈 의지를 굳게 다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어머니들의 행복한 웃음을 지켜

평양산원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보건부문 일군들속에서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소행과 감동적인 사실이 많이 나오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의 자랑입니다.》

지난해 9월초 만경대구역 만경대동에서 사는 리명희녀성이 결혼후 9년만에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은 평양산원 의료일군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이날을 위해 몇달째 남모르는 노력을 기울여온 실장 홍경순동무를 비롯한 평양산원 불임증치료연구실 연구사들의 얼굴빛은 밝지 못했다.

한것은 리명희녀성에게 심한 합병증이 있었기때문이였다. 시급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이 매우 위태로왔다.

협의회가 다시 열리였다. 구급으로 리명희녀성이 입원한 그날에만도 세번째로 열리는 협의회였다.

《방도를 토론해봅시다.》

실장의 목소리가 울린지도 퍼그나 시간이 흘렀지만 누구도 말이 없었다. 그도그럴것이 지난 기간 수백명의 불임증환자들에 대한 치료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하지만 이들에게는 이런 상태의 환자를 치료해본 경험이 별로 없었던것이였다. 하지만 모두의 가슴속에는 어떻게 하나 환자는 물론 아기의 생명까지도 끝까지 지켜낼 불같은 열의가 차넘쳤다.

이윽고 실장이 나직하나 힘있는 어조로 말하였다.

《우리에겐 물러설 권리가 없습니다. 이 시각부터 집중치료전투를 시작합시다.》

그때로부터 열흘 남짓한 기간 불임증치료연구실의 의료일군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날과 날을 보냈다.

담당연구사 한일순, 담당간호원들인 전명옥, 허경옥동무들은 환자의 침상곁을 떠나지 않고 치료에 전념하였다. 연구실의 다른 의료일군들도 자기들의 담당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바쁜 속에서도 수시로 리명희녀성의 상태를 알아보고나서 적극적인 방조를 주었다.

이들은 인민대학습당과 중앙과학기술통보사에서 최신과학기술문헌들에 대한 자료작업을 면밀하게 한데 이어 합리적인 치료전술을 세우기 위한 집체적협의를 매일과 같이 진행하였다.

이런 불같은 마음에 받들려 생사기로에서 헤매던 환자는 기적적으로 소생하였다.

그로부터 열흘후인 지난해 10월 또다시 어려운 상태에 처했던 환자는 이들의 집중치료전투에 의해 건강을 원만히 회복하고 퇴원하였다.

그후 오래동안 이곳 의료일군들의 관심속에 집에서 안정치료를 받던 리명희녀성은 지난 3월 평양산원에 입원하여 수십일동안이나 건강관리를 보장받았다.

그 나날 불임증치료연구실의 10여명의 의료일군들은 리명희녀성의 몸을 추세우기 위해 영양가높은 여러가지 음식들도 매일같이 안겨주며 뜨거운 지성을 기울였다.

치료전투의 전기간 환자의 건강회복을 위한 모든 대책을 우선적으로 취해준 원장, 초급당비서를 비롯한 산원의 일군들과 불임증치료연구실의 의료일군들은 리명희녀성에게 생일상까지 성의있게 차려주어 환자의 눈굽을 뜨겁게 적셔주었다.

그러던 지난 5월 중순 새벽이였다.

전날밤에 일찌기 잠에 들었던 리명희녀성은 참을수 없는 아픔에 불쑥 깨여났다. 진통이 시작된것이였다.

직일근무를 서던 의료일군들이 즉시에 달려왔다.

그로부터 30분후 이곳 원장, 초급당비서는 물론 과장 김영필, 의사 김수련, 간호원 강영란 그리고 마취수술과 의사 김순학, 간호장 리응실, 간호원 김경란동무들이 산원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의사 신련희, 마취수술과 간호원 김순금동무들도 먼길을 한달음에 달려와 그날의 치료전투에 진입하였다.

얼마후 청신한 새벽대기를 가르며 아기의 힘찬 고고성이 울려나왔다.

그 고고성은 그대로 행복의 노래소리가 되여 아직은 깊은 잠에 들어있는 리명희녀성의 가족과 자매들이 사는 집집의 창가를 두드리며 저 멀리로 메아리쳐갔다.

※ ※

며칠후 리명희녀성은 딸애를 품에 꼭 안고 건강한 몸으로 퇴원하였다. 해빛이 쏟아져내리는 평양산원의 구내를 나서는 그의 얼굴에는 결혼후 10년만에 어머니가 된 무한한 기쁨과 행복의 미소가 함뿍 어려있었다.

한 평범한 가정의 행복을 위해 한해 남짓한 기간 하루와 같이 헌신의 날과 달을 바쳐온 평양산원의 의료집단은 그날 리명희녀성을 따뜻이 바래주고나서 또다시 새로운 집중치료전투에 들어갔다. 이 나라 어머니들의 행복의 웃음을 지켜.

본사기자 방 경 찬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여

덕천시산림경영소 일군들과 종업원들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아이들을 위한 일, 조국의 미래를 가꾸어가는 길에 깨끗한 량심을 묻고 헌신의 땀을 바쳐가는 훌륭한 사람들속에는 덕천시산림경영소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가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고 하는것도 미래를 사랑하고 후대들을 위하여 투쟁하라는것입니다.》

얼마전 덕천시 승리산소학교의 운동장으로 낯익은 자동차 한대가 들어섰다. 차에서 내려 교직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 그들은 지배인 오영삼동무를 비롯한 시산림경영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이였다.

그날 학생들에 대한 교수교양사업에 절실히 필요한 수많은 물자를 싣고온 그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학교의 여러곳을 돌아보며 자기들이 도와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서야 자리를 떴다. 학교의 교직원들은 오랜 기간 교육사업을 물심량면으로 돕고있는 시산림경영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소행에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조국의 미래를 위해 뿌리가 되고 밑거름으로 살려는 시산림경영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지성은 이뿐이 아니다.

지난 5월 덕천시에서 후대들에 대한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이 깃들어있는 2월16일소년단야영소를 더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이 진행될 때였다.

야영소를 꾸리는데 필요한 마감건재를 놓고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생각이 많았다. 건물의 질적수준을 보장하는데서 마감건재가 중요한 문제로 나섰지만 시에는 그런 마감건재를 생산하는 곳이 없었다.

이때 공사의 난문제를 솔선 말아나선 사람들이 있었다. 시산림경영소 지배인 오영삼동무와 종업원들이였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에서는 미흡한 점이란 있을수 없다. 우리 단위에서 공사에 필요한 마감건재를 보장하겠다.

공사지휘부에 찾아와 이런 불같은 심정을 토로한 오영삼동무는 그길로 종업원들을 이끌고 수백리 먼길을 떠났다. 며칠후 그들은 천수백점에 달하는 질좋은 마감건재를 마련해가지고옴으로써 공사를 제기일내에 질적으로 끝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런 헌신과 지성에 떠받들려 보다 훌륭히 꾸려진 2월16일소년단야영소에서는 지금 야영생들의 행복넘친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다.

그 행복의 메아리속에서 삶의 보람과 긍지를 찾으며 시산림경영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후대들을 나라의 기둥감으로 훌륭히 키우기 위한 사업에 뜨거운 마음과 지성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리 남 호

유효아지비률을 높인 생육조사표

정주시 오산협동농장에서

정주시 오산협동농장관리위원회 기사장의 방에 있는 콤퓨터에는 모든 논벼포전에서의 아지수확보정형을 기록한 생육조사표가 입력되여있다. 여기에는 작업반, 분조별포전명, 필지번호, 모기르기정형, 품종, 면적, 모내기날자, 지력상태, 평당 포기수, 포기당 대수와 같은 기초자료들이 기록되여있다. 마지막에 해당 포전의 평당 아지수가 밝혀져있다.

이것을 보면 임의의 작업반이나 분조포전에서의 아지수확보정형을 한눈에 알수 있다. 이와 함께 해당 포전에서 유효아지비률을 높여 이삭수를 원만히 보장하고 이삭당 알수를 최대로 늘이기 위한 대책도 과학적으로 세울수 있다.

농장일군들은 농업과학원 평안북도농업과학분원 연구사들의 적극적인 방조밑에 콤퓨터를 리용하여 논벼의 생육조사표를 작성하였다. 한편 400여개의 포전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여기서 5일간격으로 논벼의 아지친정형을 알아본 다음 생육조사표에 기록하였다. 만일 어느 포전의 아지수확보자료에 의문이 생기면 콤퓨터에 입력된 전자지도를 놓고 그 위치를 확정하였다. 그리고 현지에 나가 실태를 정확히 료해한 다음 생육조사표에 기록하였다.

그것을 종합하여 농장적으로 그리고 작업반, 분조별로 아지친정형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라프들을 작성하였다.

일군들은 이 그라프의 변화과정을 주의깊게 판찰하였다. 그라프의 곡선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면 아지수가 목표했던것보다 더 많아지거나 적어진다는것을 의미하였다. 때문에 비배관리를 잘하여 목표아지수가 초과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유효아지비률을 높일수 있었다. 이들은 그것을 원리적으로 인식하고 생육조사표의 기초자료들에 근거하여 작업반, 분조, 포전별로 조절 및 이삭비료시비를 하는 시기와 량, 방법들을 과학적으로 정하였다. 논물관리대책도 이렇게 세웠다. 결과 농장에서는 유효아지비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지난 시기보다 더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본사기자 김 성 철

매국반역으로 멍들고 부패로 망해가는 오합지졸의 무리

살인과 폭행으로 길들여진 식민지고용군

지금 남조선에서 괴뢰군사병이 집단폭행으로 맞아죽은 사건이 폭로되여 사회 각계의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폭로된데 의하면 괴뢰륙군 28사단소속의 윤일병이 선배들에 의하여 때없이 구타와 폭행, 인격모욕 등을 당하였으며 결국 지난 4월 7일 집단폭행의 후과로 죽었다. 이번 사건은 절대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살인사건이 아니다. 윤일병타살사건은 미국의 식민지고용군으로서 민족반역과 동족대결의 죄악에 찬 길을 걷고있는 남조선괴뢰군에서는 달리는 될수 없는 필연적현상이다.

남조선괴뢰군은 살인과 략탈, 폭행으로 길들여진 미국의 식민지고용군에 불과하다.

작전통제권자체가 미국의 손에 쥐여져있는 괴뢰군은 남조선인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상전을 위해서 복무하며 지난 수십년간 북침전쟁도발책동의 하수인으로 리용되여왔다.

괴뢰군에 끌려간 수많은 청년들이 극도의 인간증오사상과 동족적대의식에 물젖어 살인과 략탈을 업으로 삼는 야수의 무리로 전락되여가고있다. 서로에 대한 불신과 기합, 몽둥이규률에 의해서 유지되는 부패하기 짝이 없는 오합지졸의 무리이기에 제편끼리 쏘아죽일내기를 하는가 하면 집단폭행을 비롯하여 극심한 인권유린행위는 보편적현상으로 되고있다. 오죽했으면 해마다 수많은 괴뢰군사병들이 청춘의 꿈을 버리고 스스로 목을 매달거나 자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겠는가.

괴뢰군은 동족대결의 일선에 내몰린 미국의 더러운 전쟁하수인으로, 남조선인민들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말살해온 살인마집단으로 악명떨쳐왔다.

지난 조선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른것도 미제의 부추김을 받은 괴뢰군이며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애국투쟁을 무차별적으로 탄압말살한것도 괴뢰군이다. 광주대학살만행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력사에는 파쑈살인광으로 악명을 떨친자들이 수두룩하지만 남조선군사깡패들과 같이 전시도 아닌 평화적시기에, 그것도 자기 동족을 대상으로 그렇듯 수많은 병력을 출동시켜 인간대학살만행을 감행한 그런 전례를 알지 못하고있다. 당시 군사파쑈도당은 괴뢰군사병들에게 환각제를 탄 술까지 먹여 살륙작전에로 내몰았다. 하여 광주는 사상류례없는 인간도살장으로 변하고말았다. 살인마들은 시위군중들이 모인 곳에 기관총을 마구 쏘아대고 지상과 공중에서 총포탄을 퍼부으며 거리와 마을, 사람 할것없이 모조리 짓이기고 불태우며 도시를 초토화하였다. 항쟁참가자들을 집단적으로 생매장하고 늙은이건 어린이건, 남자이건 녀자이건, 지어는 임신부까지도 닥치는대로 쏘아죽이고 때려죽이고 찔러죽인 그 무차별적인 대학살만행은 실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였다. 그것이 얼마나 몸서리쳤으면 어느 한 외국의 텔레비죤방송이 광주학살만행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보지 말라고 미리 경고까지 하였겠는가.

이렇듯 살인마집단으로 악명떨친 괴뢰군에서 일개의 사병에 대한 집단구타와 살인행위는 매일, 매 시각 일어나는 인권유린만행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괴뢰군내에서 사병들의 처참한 인권문제는 어제오늘에 비로소 제기된것이 아니다. 괴뢰군의 조작과 오늘에 이르는 치욕의 력사는 그대로 괴뢰군내부의 치떨리는 인권유린의 범죄의 력사로 기록되여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지난 1980년대말부터 《매맞는 군대를 청산》하겠다고 하면서 구타와 폭행근절 등에 대하여 떠들고있지만 개선되기는커녕 날로 더욱 우심해지고있다. 그 무슨 《신병영문화창달종합계획》이니, 《장병기본권규정》이니, 《언어폭력근절추진대책》이니 뭐니 하는것들을 발표하여 인권유린을 없애고 군의 기강을 세운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하나의 기만선전에 지나지 않았다. 남조선당국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년간 70～80명의 사병들이 목숨을 끊고있는데 그것은 구타와 폭행 등 잔인한 행위에 의한것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괴뢰군내에서 엄선하여 배치하였다는 전방초소 괴뢰군부대에서 한 사병이 총으로 같이 생활하던 사병들을 쏘아죽이고 도주하다 자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일명 《관심사병》으로 지목된 사병들이 륙군과 해군에서 련이어 자살하는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이런 속에서 윤일병타살사건의 내막이 공개되였으니 괴뢰군내에서의 인권유린실태가 얼마나 험악한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련이어 일어나고있는 괴뢰군의 총기란사사건과 자살사건, 살인사건들은 괴뢰군사병들속에서 극도의 전쟁공포증과 구타, 폭행 등이 만연될대로 만연되여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남조선에서 윤일병타살사건과 같은 경악스러운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

괴뢰군부는 사건발생이후 황급히 전군주요지휘관긴급대책회의를 연다, 징계조치를 취한다 하며 복닥소동을 피우고있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속병에 고약처방일뿐이다. 지금 괴뢰군내에는 극단적인 범죄를 감행할 우려가 있는 《관심사병》이 7 000여명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괴뢰군부의 징계소동도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의 《CBS》방송은 이렇게 전하였다.

《상상을 초월하는 폭행이 감행된 윤일병구타사망사건을 계기로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군상층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가고있다. 군에서 대형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이 나오지만 군상층부에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재임기간 대형사고가 계속 일어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은 오히려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승급했다. 현장책임을 맡은 지휘관 몇명이 징계를 받는것으로 책임자처벌은 얼렁뚱땅 넘어가기 일쑤이다.》

이것은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이 아무리 대책이니 뭐니 하고 고아대도 윤일병타살사건과 같은 몸서리치는 사건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게 될것이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이런 썩을대로 썩은 괴뢰군을 가지고 《응징》이니, 《전쟁불사》니 하며 분별없이 날뛰고있는 한민구와 같은 전쟁미치광이들도 정말 가소롭기 그지없다.

윤일병타살사건으로 하여 괴뢰군에 대한 남조선 각계의 불신과 배척감은 급격히 고조되고있으며 이것은 보수당국을 다시한번 궁지에 몰아넣고있다.

외세의 식민지고용군으로서 살인과 폭행이 란무하고 부패하기 짝이 없는 괴뢰군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더없는 수치이고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저주와 규탄의 대상이다.

이미 우리 민족앞에 오만가지 죄악을 저지르고 최악의 인권유린, 부패집단으로 악명떨치며 남조선에서도 버림을 받는 괴뢰군이 이제 처박힐 곳은 과연 어디인가. 그것은 력사의 무덤이다.

최 철 순

누가 야수의 무리로 만들었는가

괴뢰륙군 28사단의 악당들이 신입사병을 야만적으로 집단폭행하여 숨지게 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나 남조선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있다. 지금껏 괴뢰군내에서의 폭행사건이 한두번이 아니였지만 이번 사건은 그 잔인성과 야수성으로 하여 사회를 경악시키고있다. 불편한 자세에서 밤새껏 잠을 재우지 않는 취침통제기합이나 치약한통을 강제로 먹이는것 같은 고문은 약과였고 방바닥을 기여다니며 개흉내를 내게 하고 바닥에 뱉은 가래침을 핥아먹게 하는 등 상상 못할 가혹한 기합이 숨지는 마지막순간까지 피해자의 몸에 들씌워졌다.

끔찍한 폭행과 야만적인 기합, 살인후의 비렬한 범행은폐와 그에 대한 부실한 수사 등 이번 사건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썩을대로 썩은 괴뢰군내부의 진면모를 그대로 드러냈다. 동시에 괴뢰군이라는것이 얼마나 인간증오사상과 야수성으로 길들여진 악마의 무리인가 하는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죄악의 뒤에는 반드시 그 악을 낳는 원인이 있다. 괴뢰군을 이처럼 미친개소굴로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괴뢰당국에 있다.

미제에 의해 조작된 괴뢰군안에는 잔인성과 포악성을 《군인의 기질》로 삼고 기합과 구타로 《군기강》 즉 규률을 확립한다는 미국식《병영문화》가 깊이 침습되여있다. 그에 따라 괴뢰군부는 사병들을 사고하는 인간이 아니라 오직 상급의 명령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노예로 만들기 위해 욕설과 매질을 적극 장려해왔다. 괴뢰군내에서 실시되는 각종 살인적인 기합에 의해 불구자, 정신병자로 된 사병수는 지난해에만도 4만 5 000여명에 달하였다.

최근 5년간 괴뢰군영창에 수감된 6만 6 000여명가운데 근 절반이 구타와 폭행상습범들이였다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정말 더럽고 구역질나는 군대아닌 《군대》이다.

모진 폭행에 더는 견딜수 없어 병영에서 총기를 란사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들이 괴뢰군내에서 일상사로 되였다.

괴뢰군적으로 자살과 총기란사와 가혹행위 등 사고를 유발시킬수 있는 《관심사병》이 7 000여명이나 되고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괴뢰군내 전체 사망자의 65%에 달한다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준다. 그런즉 괴뢰군에 가면 자살과 병신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는 인식이 남조선사회전반에 지배하고있는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괴뢰당국은 지난 시기 이러루한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인권교육강화》니, 《자살예방체계구축》이니 하고 떠들어대며 괴뢰군내의 폭력실태를 개선할듯이 떠들었다. 하지만 그 식이 장식이였다. 몇해전에도 괴뢰군부는 온갖 강압과 폭력이 란무하는 괴뢰군내의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는》다고 하면서 《욕설과의 전쟁》이라는것을 선포하였었다. 하지만 극도의 인간증오사상과 몽둥이규률이 지배하는 괴뢰군에서 《폭력근절》이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것이 당시 여론의 평이였다. 그것은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조금도 그른데가 없었다.

괴뢰들이 진짜로 힘을 넣은것이 있다면 괴뢰군을 동족대결의 사냥개로 길들이기 위해 외세와의 침략전쟁연습에 마구 내모는것과 반역《정권》, 파쑈독재통치를 유지하는데 적극 써먹는것이다. 현실은 괴뢰패당이야말로 괴뢰군사병들을 죽음에로 내모는 장본인, 극악한 살인마들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번의 경악할 사건으로 여론이 물끓듯 하는데 바빠맞은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이 황급히 《대국민사과》를 한다, 범죄자들을 징계한다 어쩐다 하며 복닥소동을 피우고있지만 정신도덕적으로 부패타락하고 폭력행사가 없이는 한시도 유지될수 없는 괴뢰군에서 달라질것이란 꼬물만치도 없다.

인간의 정이 꼬물만큼도 없는 이런 야수의 무리가 그 무슨 《수호의 기둥》으로 자처하고있는것이야말로 남조선인민들의 더없는 수치가 아닐수 없다.

결론은 명백하다. 지금처럼 남조선에서 파쑈깡패들이 권력을 거머쥐고 괴뢰군을 살인마로 길들여 동족대결과 북침전쟁도발에로 내모는 한 그런 비극적현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것이다.

허 영 민

《군대판악마를 보았다》

남조선 각계의 비난의 목소리

지난 4월 괴뢰륙군부대내에서 발생한 윤일병타살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자 남조선 각계는 경악과 함께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폭행을 비롯한 갖은 비인간적만행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썩을대로 썩은 군부내의 현실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남조선의 《KBS》방송이 전한데 의하면 괴뢰륙군 28사단 내무반에 군무하던 피해자 윤일병은 4명의 구대원들로부터 상상을 뛰여넘는 가혹행위와 폭행을 일상적으로 강요당하였다.

방송은 4명의 가해자들이 윤일병 한사람을 놓고 새벽 3시까지 잠을 재우지 않는 취침통제, 치약 한통을 강제로 먹이거나 눕힌 상태에서 얼굴에 물을 쏟아붓고 심지어 개흉내를 내게 하며 바닥에 뱉은 가래침까지 핥아먹게 한 사실을 전하였다.

방송은 이어 사병들에 대한 관리에 책임이 있는 어느 한 하사관은 폭행현장을 직접 보고도 못 본척 하고 지나쳤을뿐아니라 그자신도 직접 폭행에 끼여들었다고 폭로하였다.

계속하여 방송은 군당국이 1980년대말부터 군내부에서 폭행을 없애겠다고 하면서 《구타와 가혹행위근절》을 웨치고 《장병기본권규정》이니, 《언어폭력근절추진대책》이니 하는것들을 발표했지만 소리만 요란했다, 지금도 매해 수많은 사병들이 상관들의 구타 등 각종 가혹한 행위때문에 목숨을 끊고있다고 개탄하였다.

방송은 지금 군내부에서는 장교들이 사병들의 입에 인분이 묻은 손가락을 넣게 하는 렵기적인 행위를 거리낌없이 하고있다고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다른 한 방송은 윤일병이 사망한 후 가해자들이 뻔뻔스럽게도 《가혹행위는 절대로 없었고 평소에 화목한 분위기》였다고 거짓진술을 했으며 나중에는 윤일병의 사품을 뒤져 증거물로 될수 있는 수첩들을 없애버렸다고 폭로하였다.

방송은 군당국은 그들의 죄행을 확인하고도 그것을 범죄혐의내용에 포함시키지 않고있다가 사건이 터져서야 뒤늦게 재수사에 들어갔다고 까밝히면서 군당국이 사건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의 《중앙일보》, 《세계일보》, 《매일신문》을 비롯한 출판물들도 《28사단 윤일병 사망, 단순폭행이 아니였다》, 《륙군일병 집단폭행으로 사망, 상상초월 가혹행위》, 《군부대 집단폭행 사망, 들끓는 분노》라는 제목으로 사건전말을 앞을 다투어 보도하였다.

남조선의 인터네트언론들은 윤일병의 사망사건은 명백히 살인사건이며 단순폭력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잔인하다고 하면서 과거 군부독재시대의 고문행위와 너무도 흡사하다, 매를 맞고 힘들어하자 약물까지 주사하며 구타했다니 이것이 어디 사람이 할짓인가고 격분을 표시하면서 사건관련자들을 모두 엄중히 처벌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남조선의 《군인권쎈터》 소장은 윤일병타살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들은 당시 윤일병의 사망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태에서도 폭행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욱 빈도와 강도를 높여갔다고 까밝히면서 이것은 고의적인 살인이다, 살인죄로 치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전에 많은 사건들을 다룬 법률가들도 사건수사기록을 보고는 《이것이 사실인가.》고 반문할 정도였다고 하면서 《정말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잔혹하였다.》고 분노를 표시하였다.

그는 사건과 관련하여 앞으로 더 많은것을 폭로할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

남조선의 한 기자는 이 정도이면 《군대판악마를 보았다.》는 표현을 써야 할것 같다고 하면서 군당국이 사병들에 대한 폭행을 끝장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것을 요구하였다.

지금 남조선언론들은 윤일병타살사건과 관련한 각계의 비난이 앞으로 계속 높아질것이라고 전하면서 괴뢰군당국이 이번 사건을 몇몇 송사리들을 처벌하는것으로 마무리한다면 민중의 강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본사기자 리 성 호

‖ 괴뢰군의 부패상을 고발하는 ‖

사 병 타 살 사 건

지난 4월 7일 남조선의 경기도 련천에 있는 괴뢰륙군 28사단 내무반에서는 동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선임병들의 매를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였던 한 사병이 끝내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의 죽음은 그 어떤 실수나 단순한 폭행에 의한것이 아니였다.

며칠전 남조선의 《군인권쎈터》가 윤일병타살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을 공개함으로써 괴뢰군부내에서 빚어지고있는 구타, 폭행 등 각종 몸서리치는 만행의 진상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였다.

그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괴뢰군에 입대한 윤일병은 일상적으로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리유로 때없이 리병장을 비롯한 선배들에게서 폭행을 당하였다.

이자들은 윤일병의 행동이 느리기때문에 매를 맞을 때의 반응이 재미있다고 하면서 상습적으로 그의 복부와 가슴, 턱과 뺨을 때렸고 철갑모를 씌운 다음 의자로 머리를 내리치기도 하였다. 매를 맞아 다리를 절룩거리면 보기 싫다고 때리고 구타로 정신을 잃으면 주사까지 놓아 회복시킨 다음 또다시 폭행을 가했다. 나중에는 몸에 남아있는 피멍을 지운다고 하면서 윤일병의 성기에 연고를 발라 치욕을 주기도 하였다. 사병들의 구타행위를 방지해야 할 책임을 지고있는 어느 한 하사관은 윤일병이 폭행을 당하는것을 보고도 외면하였는가 하면 어떤 때에는 제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매를 안겼다고 한다.

그뿐이 아니다. 윤일병에 대한 가혹한 폭행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고있다. 병장을 비롯한 폭행자들은 뻔질나게 윤일병에게 몇시간동안 《기마자세》로 서있게 하는 기합을 가해 그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에게 치약 한통을 다 먹이고 눕힌 상태에서 그의 얼굴에 물을 쏟아붓는 고문만행도 마구 저질렀다. 이자들은 저들의 행위가 외부에 알려지는것을 막기 위해 윤일병이 외출을 절대 못하도록 하였는가 하면 매를 맞고 다리를 저는 그가 부모들과 만나고싶어하자 《절뚝거리는 다리를 부모들에게 보이고싶은가.》고 욱박지르며 부모들과의 면회도 가로막았다.

특히 지난 4월 5일 주모자인 리병장은 점검이 끝난 다음 21시 45분부터 새벽 2시까지 3명의 공모자들에게 망을 보게 하고 윤일병을 때렸으며 그것도 성차지 않아 그에게 잠을 자지 말것을 강박하였다. 다음날 오전에는 윤일병이 피곤에 몰려 잠간 졸았다고 하여 그를 마구 때리였으며 침대밑에 가래침을 뱉고는 그것을 개흉내를 내면서 핥아먹게 하였다. 오후에는 윤일병이 음식물을 소리를 내며 먹는다고 하여 그의 가슴과 턱을 때리고 음식물이 튀여나오자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강제로 주어먹게 하였다. 이런 가혹한 행위에 더는 견디지 못한 윤일병이 끝내 오줌을 싸며 쓰러지자 그를 붙잡아 일으킨 다음 둘러메치기까지 하였다.

정신을 잃은 윤일병은 병원으로 실려갔다. 하지만 음식물에 의해 숨길이 막힌 그는 심한 뇌손상을 입게 되였으며 결국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다음날 숨이 지고말았다. 이 얼마나 몸서리치는 만행인가.

더우기 경악을 자아내는것은 살인범들이 뻔뻔스럽게도 윤일병이 《음식물을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거짓말을 하고 병영으로 돌아와서는 저들의 죄행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그의 사품을 뒤져 수첩 2개를 없애치운것이다.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때에도 이자들은 폭행은 절대로 없었으며 화목한 분위기였다고 하면서 시치미를 뚝 떼였다.

이것이 바로 윤일병타살사건의 진면모이다.

윤일병타살사건의 내막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할것을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가는데 바빠맞은 괴뢰군부는 《대국민사과》를 한다, 구타와 폭행을 금지하는 공식명령을 35년만에 전부대에 내려보낸다, 관계자들과 해당 장교들에게 징계조치를 취한다 어쩐다 하며 분주탕을 피워대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괴뢰군을 피에 주린 악마로 길들이고 군전반을 사병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살인폭력집단으로 전락시킨 저들의 죄악을 가리우기 위한 술책이다.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이 이제 와서 제아무리 가해자와 방조자, 관계자들을 처벌한다고 고아대도 남조선 각계는 그에 조소를 보내고있다.

사병들을 명령에 무작정 복종하는 노예로 만들기 위해 욕설과 폭행을 묵인하고 지어 장려해온 괴뢰군부가 이제 와서 그것을 없앤다는것은 소뿔에 닭알을 쌓겠다는것만치나 불가능한 일이다.

괴뢰군이 《허가받은 인권유린장》으로 락인된지는 이미 오래다. 괴뢰군내에서 실시되는 잔인한 기합종류만 해도 무려 60여가지나 된다. 괴뢰군장교들이 《군기확립》의 구실밑에 사병들에 입에 인분을 처넣는 행위도 례상사로 되고있다. 지금 괴뢰군내에서 자살과 탈영, 총기란사사건들이 그칠줄 모르고 군기피현상이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있는것은 바로 이런 고질적인 가혹한 인권침해행위때문이다. 오죽했으면 남조선언론들이 《폭력은 군을 유지하는 기본수단》이라고 개탄하고 있겠는가.

윤일병타살사건은 극도의 인간증오사상과 몽둥이규률이 지배하는 식민지고용군 괴뢰군의 부패상을 만천하에 날날이 고발하고있다.

본사기자 심 철 영

빨간등이 켜진 에볼라공포증

오늘 급격히 전파되고있는 전염병들은 인류의 생존을 엄중히 위협하는것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최근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급속히 확대되고있는 에볼라비루스가 그 대표적실례이다.

알려진데 의하면 에볼라비루스는 현재 와찐도 없고 치료방법도 똑바로 서있지 않은 새로운 전염성비루스이다. 에볼라비루스에 감염되면 열과 구토, 설사, 근육아픔, 불쾌감과 출혈같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며 병에 걸린 사람들중 사망률이 90%로서 매우 위험한 전염병으로 인정되고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7월 24일부터 나흘간에 기네와 리베리아, 시에라레온, 나이제리아에서 확인된 사망자수가 57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에볼라비루스는 1976년에 꽁고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여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악성비루스이다. 아직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에볼라비루스는 감염환자나 동물의 피, 체액을 통하여 전염되는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번에 에볼라비루스는 기네남동부의 시골지역인 구에께도우와 마센따마을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였으며 현재는 농촌지역에서 도시에로 급격히 전파되고있다.

지난 3월 이 비루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사망자수는 700명을 넘어서고있다. 현재 기네뿐아니라 서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에 급격한 속도로 전파되고있으며 날을 따라 사망자수도 늘어나고있다.

리베리아에서는 환자들을 치료하던 의사가 이 비루스에 감염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태가 험악해지는 속에 최근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에볼라비루스에 대한 경보가 내려지고있으며 에볼라공포증이 서아프리카로부터 전세계에로 확대되고있다.

특히 항공려행객들을 통한 감염확대우려가 높아지면서 아프리카와 린접한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비행장에서의 방역대책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고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6월말 에볼라비루스감염에 의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기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꼬뜨디브와르와 말리, 세네갈, 기네—비싸우 등 서아프리카의 모든 주변국가들도 경계를 강화할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에볼라비루스에 감염된것으로 의심되는 환자와는 일체 접촉을 삼가하고 손을 자주 씻을것을 권고하고있다.

얼마전 세계보건기구는 서아프리카지역 11개국 보건상들을 초청해 에볼라비루스를 예방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들을 론의하였다.

리베리아대통령은 자기 나라에서 12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에볼라비루스를 반드시 차단할것이라고 밝히면서 국경페쇄조치를 발표하였다.

시에라레온보건당국은 에볼라비루스전파를 막기 위해 철저한 환자관리를 요구하고 에볼라비루스감염환자들이 격리된 시설을 무단으로 리탈할 경우 범죄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하였다.

이처럼 에볼라비루스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시시각각으로 위협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전세계적으로 빨간등이 켜진 상태이다.

이러한 현실은 세계가 에볼라비루스와 같은 전염병의 전파와 그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을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본사기자 신 경 섭

내정간섭으로 얻을것은 배척밖에 없다

인간생활에서 랭대를 받고 쫓겨나는것만큼 무안하고 구차한 처지는 없을것이다. 아마 그래서 죽으라는 말보다 가라는 말이 더 싫다는 속담도 생겨났을것이다.

못된짓을 하면 그만큼 배척을 받기마련이다.

얼마전 바레인외무성이 자국의 내정에 간섭한 미국무성 차관보를 환영할수 없는 인물로 선포하고 추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외무성은 미국무성 차관보가 바레인내정에 란폭하게 간섭하고 다른 정당들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특정한 당과 모임을 가짐으로써 사람들사이에 리간을 조성하고 외교규범을 위반하였으며 정상적인 국가간 관계를 훼손시켰다고 폭로하였다.

차관보가 모임을 가졌다는 특정한 당이란 몇년전부터 반정부활동을 벌려온 시아파이슬람교도들의 그루빠이다.

남의 집에 가서 이방저방 머리를 들이밀며 온당치 못하게 놀아댔으니 쫓겨나는것은 명백하다.

이번 일은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면서 강권과 전횡을 일삼고있는 미국이 받은 응당한 대접이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최근년간 미국의 적지 않은 외교인물들이 가는 곳마다에서 많은 나라들로부터 배척을 받으며 쫓겨났다.

지난해 베네수엘라에서 외교관의 탈을 쓰고 이 나라 군부인물들과 접촉하면서 반정부음모를 벌린 죄로 미국무관이 추방당하였다. 그후 얼마 안있어 볼리비아는 자국의 정치문제에 간섭하면서 반정부세력들과 결탁하여 갖은 모략책동을 벌려온 미국제개발처 요원들을 추방하였다.

볼리비아에서는 2008년에도 야당세력을 지지하고 정부를 반대하는 음모를 꾸민 자국주재 미국대사와 반마약지부성원들을 추방한바 있다.

로씨야에서는 지난해 5월 로씨야정보기관관계자를 매수하려다가 이 나라의 해당 기관에 적발체포된 모스크바주재 미국대사관 3등서기관이 추방령을 받고 황황히 쫓겨갔다.

올해에는 또 어떤가.

지난 2월 베네수엘라는 사증을 내여준다는 구실밑에 대학들에 기여들어 이미 저들이 키워놓은 대학생폭력단체 책임자들을 만나려 한 자국주재 미국대사관 직원 3명을 추방하였다.

3월에는 짐바브웨가 《출장》목적으로 자국에 입국하여 위법행위를 한 전 미국회 의원을 추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최근에는 동맹국이라고 자처하던 도이췰란드에서 베를린주재 미국대사관 정보기관 책임자라는자가 추방당하는 망신을 하였다.

사실들은 그 어느 나라도 미국의 횡포한 내정간섭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그런데도 미국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있다.

최근에 있은 한가지 사실만 보아도 미국이 아직까지도 세계의 《제왕》,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면서 오만하게 놀아대고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얼마전 미국회 상원에서 뛰르끼예주재 미국대사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다.

청문회에서 상원의원 죤 맥케인은 뛰르끼예가 권위주의로 나가고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고는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는 경우 대사지명을 부결할것이라고 위협하였다.

그러자 대사지명자라는자는 《뛰르끼예가 권위주의로 표류하고있다.》고 거침없이 대답하였다.

아연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이 발언을 두고 미국무성 대변인이라는자가 그가 뛰르끼예에서의 《민주주의원칙을 지지하는 강력한 목소리로서 복무할것》이라느니, 《미국에 있어서 그보다 더 훌륭한 대표자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느니 하고 두둔해나선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뛰르끼예외무상은 미국이야말로 권위주의적인 본성이 판을 치는 곳이라고 하면서 반박해나섰다.

부임되기도 전에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하는 이런 작자를 뛰르끼예가 대사로 받아들이겠는가는 두고보아야 할 일이다.

그러나 한가지 명백한것이 있다. 설사 문제의 대사지명자라는자가 부임된다 해도 내정간섭의 척후병이 되여 돌아치다가 얼마 못 가서 쫓겨나게 될것은 뻔하다.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을 일삼는것이 본성이고 생존방식이라면 세계도처에서 미움을 사고 배척을 받는것 역시 달리는 될수 없는 미국의 가련한 신세, 비참한 숙명이다.

본사기자 리 철 혁

미국의 그릇된 주장을 배격

이란외무성 대변인이 7월 30일 종교적자유가 부족하다느니 뭐니 하며 자기 나라를 걸고든 미국의 그릇된 주장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그는 미국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것이라고 하면서 이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헌법에 따라 신앙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이야말로 이슬람교공포증을 불러일으키고 이슬람교도들을 차별하는 등 세계에서 종교적자유와 권리를 가장 엄중히 유린하는 나라라고 그는 까밝혔다.

그는 특히 가자지대에서 련일 가증스러운 범죄행위들을 감행하고있는 이스라엘당국을 적극 비호두둔하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종교문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할 아무런 명분도 없다고 단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이스라엘의 유태인정착촌 확장책동에 돌을 던지며 항거하는 팔레스티나인

ㄱ-411214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